"無我 말하는 佛者… 실제로는 죽음 가장 겁내"

'타인 수명보다 내 수명 더 중요한가' 설문에 스님 72% 무종교인 31% "그렇다"

불자들이 타종교인들에 비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빅 싱크'는 2월 28일 불교를 종교로 삼는 불자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흔히 생사(生死)초월과 무아(無我)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불자들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연구결과"라고 보도했다.



'빅 싱크'가 인용한 연구결과는 1월 미국 아리조나 대학 션 니콜라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인지과학〉에 발표한 논문〈사진〉서 발췌했다. 연구팀은 각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죽음과 이타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조사 전 '불자들이 가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이타성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학자 30인에게 불교교의에 따른 이상적인 답변을 미리 자문받은 상태였다.

조사는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불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남인도의 빌라쿠피(Bylakuppe)와 문고드(Mungod)의 티베트인 망명촌의 일반 재가자와 출가자 수백여 명을 중심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되었다.



생사초월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불자들이 오히려 가장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미얀마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스님.

질문 중에 하나였던 "자기 자신은 연속성과 영속성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사전에 예상한 대로 불교 출가자들의 대답이 가장 부정적이었고, 서양의 경우 종교의 유무를 떠나 연속성을 믿는다는 사람이 대다수였으며, 특히 미국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했다. 그 외의 그룹에선 절반씩 긍정과 부정을 밝혔다.

그런데 "죽음과 자신의 소멸에 대한 공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연구팀은 "놀랍게도 불교도, 그것도 출가자들이 가장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설과 이에 대한 훈련이 가장 강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그룹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충격적인 결과였다. 이어서 이타성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약이 있다. 자신이 쓰면 반년의 수명이 늘지만, 타인에게 쓰면 그 사람의 수명이 5년이 늘어난다. 자신에게 쓰겠는가? 타인에게 쓰겠는가?"라는 질문에서 72%의 불교승려들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는 종교가 없는 미국인들의 대답(31.2%)의 두 배가 넘는 응답이다. 공동연구자였던 펜실베니아 대학의 니나 스트로밍거 박사는 "지금까지의 연구 경험상 가장 예상을 어긋난 결과"라며 연구팀이 받은 충격을 밝혔다.

연구팀은 이 모순에 대하여 "불교는 죽음을 통해 반열반(般涅槃)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영혼의 영속성을 주장하는 그리스도교 보다 자신의 소실에 대한 감각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육신을 신기루와 같다고 믿고, 수행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결과를 보도한 '빅 싱크'는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출가자들의 수행경력과 수행의 심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지적하며 명상에 숙련된 출가자나, 교학을 심도 있게 수학한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 2일 일본의 종교관련 인터넷 매체 '토카나' 역시 본 결과를 보도하며 "불교의 교리에서 먼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해탈이나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반박하면서 본 조사결과는 종교적인 교의적 바탕을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출가자가 이기적이라는 결과에 대해선 "불교에선 분명히 자기희생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승려가 이타적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스스로 이기적인 것을 알고 솔직히 대답한 것이 출가자로서 옳은 자세"라고 꼬집었다. 또 "연구자들이 예상외의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해서 밝힌 것은 '불교의 승려는 무아에 통달한 이타적인 성인군자'라고 오리엔탈리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연구에 임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아직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불교계에서의 반박이나, 뒤따르는 학술적 연구는 발표 되지 않았다.

박영빈 객원기자

"절에서 온천욕 즐기고 가세요"

일본 벳푸 사찰, 원천 끌어 탕으로 목욕보시



일본에서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 벳푸(別部)에 소재한 사찰 쵸센지(長泉寺)〈사진〉. 최근 경내의 작은 온천탕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3월 1일 일본의 '오리콘 뉴스'가 전했다.

특색 있는 7곳의 원천을 관광하는 코스인 '지옥순례'는 일본 국내외에서 유명한 관광코스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그중에서 간헐천으로 유명한 타츠마키 지옥의 물을 끌어와 탕을 만든 쵸센지는 자그마치 9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이다. 본래는 지금의 소재지 보다 좀 더 위의 산에 있었지만 여러 차례 전쟁과 재난으로 현재지로 옮겨왔다.

온천이 경내에 생기게 된 것은 약 50년 전 전대 주지스님 대의 일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던 공동온천이 관리인의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자 절에서 주민들을 위해 사업을 이어 받으면서 욕탕을 경내에 세우게 된 것. 前주지 아키노리 스님은 "절 인근의 병원에서 참배하러온 환자분이 '절에 온천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 걸 듣고 온천을 하기로 결심다"고 말했다.

욕탕의 위치를 이전하면서 본래 원천을 끌어 올 수 없었기에 절 인근의 타츠마키 지옥의 물을 끌어와 온천이 생겼다고 한다. 욕탕의 욕조는 모두 절의 대중들이 손수 만들고 욕탕의 이름을 '야쿠시노 유(藥師の湯)'라고 붙였다. 절의 본존인 약사여래의 가피로 탕에 들어간 모든 이가 건강하길 기원하는 이름이다.

탕에 들어갈 땐 주지스님이나 욕탕의 청소를 맡은 소임자에게 탕을 쓰겠다고 말하고 이름과 주소지를 방명록에 쓴 후 알아서 보시금을 내면 된다. 입욕료는 무료이지만 자유롭게 보시금을 받는 것은 탕을 처음 만든 이래로 내려온 전통이다.

대중 스님들이 손수 설계하고 만든 작은 온천탕이라 샤워시설도, 수도꼭지도 없는 작은 탕. 욕탕도 하나뿐이라 사용 시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탕에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원천을 그대로 끌어와 쓰는 것이라 계절과 그날의 날씨에 따라 탕의 온도도 자주 변한다. 따로 냉수를 연결해 두지 않았기에 탕이 뜨거우면 대야에 탕의 물을 받아 식혀서 다시 탕에 부어 식혀야 하는 등 여간 불편한 게 아니지만 유명한 원천에 직접 몸을 담글 수 있다는 점에 입소문이 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사찰음식 대유행…간단한 절밥 인기

건강한 음식으로 간소하게 차려먹는 식사 유행



일본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절밥'.

한 상의 사찰 요리가 아닌 밥과 반찬 같은 하나의 메뉴로 구성된 '절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T-SITE'는 3월 8일 간소화된 사찰요리 '절밥'의 인기몰이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은 사찰음식을 한 상 차림의 음식으로, 절밥을 간소한 식사로 규정한다.

일본서 근 몇 년 사이에 사찰요리와 절밥이 인기 테마로 자리 잡았다. 건강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크게 유행 중이며 이를 테마로 한 책이나 만화, 잡지 등이 차례로 발간되고 있다. 유명 TV프로그램에서도 특집으로 다뤄질 정도다. 또한 작년 도쿄의 모 사찰에서는 간단한 사찰음식을 제공하는 '절 카페'가 생기면서 많은 여성손님들이 붐비기도 했다.

'T-SITE'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절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격식과 규칙을 지켜가며 먹어야하는 사찰요리와는 달리 스님들이 일상에서 먹는 식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절밥'은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챙기면서도,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때는 일부 육류와 어패류를 허용하는 융통성이 있어, 가정의 식탁에 쉽게 오를 수 있다.

이 절밥의 레시피를 최근 간행한 도쿄의 고찰 콘고인(金剛院) 주지 노노베 리코 스님은 "절밥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조미료를 최소한으로 하여 식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린다. 자극적이지 않고, 직접 손을 직접 써서 만든다"고 설명했다.

리코 스님은 "맛이 아닌 식감과 향, 색깔 등 모든 감각을 느끼며 먹을 수 있는 것이 절밥이다. 배가 가득차지 않게, 염분과 당분, 기름을 적게 넣어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고, 자극적인 식재료를 피한다. 계량스푼이나 정량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게 손과 손가락으로 직접 요리를 만들기에 요리를 만들고, 먹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다"고 절밥의 핵심을 소개하며 "식사는 우리들의 몸 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 절밥은 먹고 느끼는끼는 것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식사다"고 절밥이 널리 보급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을 치세요!
인터넷동영상강좌 평생교육원 대통인.com
온라인 인터넷 동영상강의보기 사이트
수강상담 전화
1661-6551
(24시간 접수중)
인터넷 동영상 수강 과목

명리학	구성학	기문둔갑
매화역수	천문지리풍수	수상
육효	육임	주역
타로	물상명리	풍수지리
성명학	수맥	팔체질
꿈해몽	생활풍수	사자소학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해서 좋다.
• 역학의 모든 과목을 실력있는 강사에게 배운다.
• 누구나 저비용으로 반복하며 전 과목을 공부한다.
• 누구나 공부하면 빠른시일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학술원을 치세요!
오프라인강좌수강! 천국공개강의 알리미 사이트 대통인학술원.com
오프라인 인터넷 공개강의보기 사이트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상담 전화
1833-9551
(24시간 접수 중)
현재 오프라인 수강생모집 과목

과 목	강사명	개강일	수강시간	강의시간	월수강료	비 고
구 성 학	박창원	3월13일(화)	14-17시	3개월	20만원	교재제공
자연물상 사주명리	지정도	3월14일(수)	13-15시 16-18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유니버셜 타 로	차두성	3월14일(수)	10-12시 14-16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주 역 점	장호철	3월15일(목)	14-16시 19-21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3월18일(일)	12-14시			
마르세유 정통타로	조미정	3월16일(금)	14-16시 17-19시	2개월	20만원	교재제공

•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대통인학술원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공개강의 공지를 자세히 보세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22번지 흥도빌딩 3층 301호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30m) (자가용 → 영등포구 구의회옆 당산공영주차장 이용)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등간격 : 규격참조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
LED전구 국산인증(정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연등승하강 장치
완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